



19일 전북대학교에서 유적회장 이강원 대표와 종종 관계자, 전북대 이귀재 부총장 및 조대연 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 협약식을 열었다.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에 중요’

독전어사 이상형 집안 소장품, 전북대에 기탁돼
대부분 18세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로 이뤄져

전북대학교에 조선시대 독전어사 이상형(李尙馨 1585~1645) 집안의 소장품 기탁됐다. 전주이씨 종중인 (사)구국충신 이상형 독전어사 유적회의 이강원 대표가 종종의 뜻을 모아 17~18세기 학술진흥을 위해 소장품 165점을 전북대 박물관(관장 조대연)에 전달했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유적회장 이강원 대표와 종종 관계자, 전북대 이귀재 부총장 및 조대연 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기탁협약식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유물은 시호교지 등 고문서 120점, 충경공파 종안 등 고서 21점, 천목유고 목판 16점, 관복 허리띠 등 생활용품 8점이다. 17~20세기의 소장품들이지만, 대부분 이상형 활동기와 18세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정치·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상형은 호가 천목재(天默齋)이며, 본관은 전주다. 전주이씨 효령대군의 7대손이며, 갑장생의 문인이다. 1625년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광해군의 인

목대비 폐비 전에 반발해 광인행세를 했던 태인의 7광(狂) 중 한 명이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해 최명길 등을 탄핵하는 데 동조했으며, 독전어사(督戰御史)로 임명돼 전투를 독려했다. 1713년에는 그의 시가와 산문을 엮은 ‘천목유고’가 발행됐다. 남원의 요계서원에 제향됐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전주이씨 종중에서는 독전어사 유적회를 결성해 이상형을 구국충신으로 선양하고 있다. 그의 묘는 전북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 있으며, 2015년에 그의 묘비가 임실군 향토 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전북대 박물관은 기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와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기록문화의 재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열 계획이다. /장영성 기자

옛 선조들의 멋... ‘군자의 벗’

익산 삼기면 충간공보물 제651호 박물관 특별전 내달 31일까지

익산 삼기에 위치한 충간공보물 제651호박물관(관장 이춘영)이 옛 선조들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면 미륵산1길 8, 063-841-7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물관은 지난 9월 21일부

‘군자의 벗’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통의 맥을 이어 만들어지고 있는 사랑방 전통 가구 20여 점이 전시된다. 사랑방은 선비들이 오직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꾸며 기거하였던 공간으로 그 공간에 배치되었던 가구들을 통하여 선비들의 소박함을 추구하고 본질을 지향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익산시 삼기

터 진행된 이번 특별전을 위해 맡기지 연장 운영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 화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옛 선비나 사대부는 항상 마음에 도를 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 오늘날 군자 정신, 선비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선비들의 숨결과 손길이 느껴지는 사랑방 가구들을 통해 군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성 기자



판소리·클래식의 ‘만남’

서의철·아더첼로콰르텟
군산서 ‘하우스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국악과 클래식의 콜라보 하우스콘서트 ‘소의철 & 아더첼로콰르텟’의 무대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 올린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 중심으로 관객들은 무대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공연자와 관객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는 차세대 소리꾼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서의철과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아더첼로콰르텟의 신선한

조합으로 4대의 첼로와 판소리가 조화롭게 장르의 장벽을 부수며 소용돌이치는 음악을 통해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다. 전석 무료로 운영되나 비대면 티켓운영을 위해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 가능하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공연장 방역 및 관객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현직 개그맨 출연 감동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21일 익산서

현직 개그맨들이 직접 출연해 ‘기적을 낳는 믿음’의 감동 메시지를 전해주는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가 오는 21일 송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는 개그맨을 소재로 그들의 꿈, 열정, 사랑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이다. 개그맨들이 직접 출연해 감동과 재미를 더해 주는 이번 작품은 탄탄한 줄거리로 관객들을 웃고 울고 감동하는 흥성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아노와 해금 라이브 연주로 진행되는 부분 또한 이 공연의 특징이다. 줄거리는 10년 전 최고의 개그맨을 꿈꾸며 지방에서 올라온 주인공이 대학로 개그 공연

장에서 겪는 아픔과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재형, 한현민, 정진욱, 최수연, 방보용, 전보영, 박시원 등 현직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63-859-3254로 하면 된다. /익산=장영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1

315 농지연금지급02
415 농지연금지급03
0515 농지연금지급04
0615 농지연금지급05
10715 농지연금지급06
30815 농지연금지급07
30915 농지연금지급08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30915 농지연금지급10

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일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임대료 인환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민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년번벌 퍼포먼스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내달 4일 김제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년번벌 퍼포먼스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팀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고의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의 마치 실에 매달려 움직이는 인형을 보는 듯한 정교한 안무가 돋보이는 뮤지컬이다. 말이 없이 소리와 춤으로만 표현하는 년번벌 퍼포먼스 ‘마리오네트’는 3개의 막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형식을 띄고 있으며, 클래식하고 몽환적인 음악과 강렬하고 서정적인 춤으로 완벽하게 마리오네트(인형)를 실에 매달아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극)을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2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도태 기자

찾아가는 ‘조부모 바른생활 양성평등 교육’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김제 거주 어르신 대상 특강



특히 지리적 접근성 한계를 해소한 수요자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의 편견 없는 공동체 의식과 취향을 존중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wcre.kr)나 교육사업팀 063)254-381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창 정정렬 선생 추모

익산 판소리 경연 22일 본선

국창 정정렬 선생을 추모하는 전국판소리·고법경연대회가 익산지역에서 개최된다. 19일 (사)익산국악진흥원에 따르면 ‘제20회 전국판소리·고법경연대회’가 오는 22일 중앙동 소월 일화정 판소리전수관에서 열린다. 이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김수진 강사가 강의를 초청해 ▲나답게 너답게 잘 자리잡힘 ▲위기는 기회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가정 및 공공어린이집의 휴원으로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조부모 손길에 맡겨지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부모의 가족 내 성역할 인식 개선 및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뉴시스